

**1978년 4월 30일 아들 형이를 가슴에 묻다**

우리 형이가 11학년 되던 해의 마지막 모습이다.



**형이의 마지막 모습**



형이가 다니던 고등학교 앞에서 찍은 형이의 마지막 해의 사진이다.

이렇게 큰 아이는 꿈에 안보이고 항상 어린애만 보인다. 어렸을 때 애들을 고생 많이 시킨데 대한 죄의식 때문인 것 같다. 이 모습을 꿈에라도 한번 보고 싶다.

애들이 잘 그리고 다 크고 학교에도 잘 다니고 공부와 운동도 잘하고, 이제는 살 만하다고 안도의 숨을 쉬는 순간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 형이를 손 끝에서 놓친 일이다.



- 형이의 관 앞에 서서 우는 아버지와 엄마 -

철수를 잃고 내 눈의 눈물이 아직 마르기도 전에, 일년도 채 되지 않은 다음해, 1978년 4월 30일에 내 아들 형(형수)이를 잃게 되었다. 잘 살아보려고 미국에 왔는데, 아이들을 더 이상 고생 안 시키려고 미국에 왔는데, 교육을 마음대로 시켜보려고 미국에 왔는데, 한국을 등지고 남의 나라로 이민까지 온 목적, 사는 목적 모두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다시는 얻을 수도, 볼 수도 없이 영원히 놓쳐버린 그 아픔과 허탈감, 무기력감, 절망감을 어디에 비하랴! 무슨 말로 표현이 가능하랴! 나는 완전히 혼이 나가 절망이란 웅덩이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처음 이민생활은 Missouri 주 St. Louis 에 시작했고 8년간은 봄이 오는지 가는지, 꽃이 피는지 지는지 쳐다볼 새도 없이 생계를 위해

바쁘게 뛰었다. 그러던 중에 이민 온지 8년되는 1978년 4월 30일 하늘의 해와 별 모두가 떨어지고, 하늘 전체가 다 쏟아져 내려온 것 같았다. 나는 나의 삶 자체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왜 나 같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3살 때 어머니가 성천강에서 빨래하시는 동안 물에 빠졌다가 떠올랐다는데, 왜 그때 아주 영원히 가라앉지 못했는가? 초등학교 때 마라리아를 많이 앓았는데, 왜 그때 죽지 못했는가? 어릴 때 항상 어머니가 앓는 병을 다 앓았는데, 그때 왜 죽지 않았는가? 6.25 사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왜 나도 죽지 못했는가?

아들과의 이별은 심장을 비수로 찢개고 뼈를 깎는 것 같이 아팠다. 나의 영혼은 내 안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가 집 잃은 노숙자가 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 절망이란 짐승들이 들끓는 허허벌판 광야에서, 죽은 마른 뼈들 속에 섞여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방황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요, 내 탓이요, 나의 죄 값이라 생각되어 나는 매일 아들 무덤 앞에 앉아 목 놓아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는 여자도, 어미도, 인간도 아니고 죽을 자격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제발 나를 벌하시고, 놓으시고, 버리시고, 용서도, 불쌍히도, 위로도, 축복도 하지 마시고, 아들 무덤 옆의 땅이 짝 갈라져서 나를 삼키게 하시라"고 애원하고, 살기를 거부했다. 야곱은 압복강가에서 환도 뼈가 부러지도록 축복을 달라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 (창 32: 22-32) 했다지만 나는 나를 제발 버리시고 죽여 달라고 1년이란 긴 긴 세월을 내 몸의 모든 뼈와 살과 영혼까지 모두 부서지고 내려앉을 때까지 하나님을 밀어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꼭 껴안고 놓아주지 아니하시니 결국 나는 어느 시기에 가서 나는 기진맥진하여 "하나님께서 이기셨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하시라"고 항복했다.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만 나는 가슴보다 더 깊은 곳, 내 영혼 속에 묻었다. St. Louis 를 제 2의 고향으로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서 너무 많은 추억들이 있었다. 형이를 땅에 묻고 나는 눈물로 사는

세월을 보냈다. 아무리 사람의 몸의 75%가 물이라고 하지만 인간에게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다고는 상상을 못했다. 함께 햄버거를 먹던 가게를 지나가도, 운동하던 공원을 지나가도, 다니던 학교, 살던 동네, 살던 집, 그 아이가 살던 방 모두가 내게는 눈물이었다. 집을 나서며 울고, 들어오며 울고, 밥상에서 울고, 자면서 울고, 걸으면서 울고, 운전대를 딱 잡으면 울기 시작했다. 무덤 앞에 앉아 하는 통곡은 매일의 일과였다. 무덤이 그리 가까운 곳도 아니었다. 어떤 날 아침에는 집을 나서는 즉시 무덤부터 들리고, 어떤 날은 직장에 도착하자마자 되돌아서서 무덤으로 가고 (거리가 20여마일 되었다), 어떤 날은 저녁에 직장에서 나와 무덤으로 먼저 가고 완전히 혼백이 나간 사람처럼 살았다. 산 것이 아니고 죽음이었다. 무덤의 잔디를 들어내고 꽃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일 들려 물을 주는 미친 행동을 했는데 나의 가족과 친구들과 산소 관리인 까지도 나의 미친 짓을 막지 않았다. St. Louis의 친구들은 내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St. Louis에서 형이의 무덤 위에다 꽃밭을 만들고  
매일 물을 주며 울고사는 모습 (1978)  
I planted flowers on top of Hyoung's grave  
and cared for them and wept there every day (1978)

생각했다 한다. 울며 불며 지낸 세월이 벌써 가을이 되었다. 어느 날엔가 나는 형이의 무덤이 푹 꺼진 것을 발견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꽃밭을

만들고 여름 내내 물을 주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내가 그 동안 완전히 미친 짓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 때야 산소관리인에게 잔디를 다시 입히라고 했다. 그는 흔쾌히 풀을 다시 덮었다. 그도 역시 산소를 관리하는 동안 그렇게 많이 우는 엄마를 본일이 그 전에도 후에도 없었을 것이다. 아래의 사진은 잔디를 입혀 모든 다른 사람의 무덤같이 된 모습이다. 꽃을 사다 꽃병에 꽂아놓고 엄마와 아버지와 용이가 함께 방문하는 모습이다.



형이를 방문하는 엄마와 아빠  
My husband and I are visiting Hyoung



형이를 방문하는 엄마와 용수  
Sam and I are visiting Hyoung

형이의 산소에 갈 때마다 나는 항상 "형이에게 간다" 혹은 "형이를 보러 간다" 는 표현을 썼다.

사진 뒤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 내가 형이 묘를 꽃으로 덮고 거기에 가서 그 것을 가꾸는 것이 낙이다. 이 불쌍한 엄마는 형이 묘에 가 앉아 울고 오는 것이 낙이다. 비석을 세우기 전이다. "

게다가 나는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듣게 되었다. 형이 방에서는 인기척이 났고, 내가 부엌에서 방을 향해 걸으면 바람같이 무엇인가 나를 따랐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우리 집안의 문 뒤 마다 검은 옷차림의 사람이 숨어 나를 해하려고 기다리는 것 같아 무서워서 살 수가 없었다. 나는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거나, 죽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용수가 학교에서 오면 무서워서 혼자 있을 수 없으니 밖에 나가지 말고 내 옆에 있으라고 했다. 용이가 함께 있어도 나는 남편이 가계 문을 닫고 들어올 때까지 벽에 딱 붙어 앉아 있어야지 뒤에 누가 따르는 것 같아 공포에 떨어야 했다. 용이가 한번 내게 말했다. "엄마, 내게도 인생이 있는데 엄마가 적응을 해야지 나를 이렇게 붙들고 꼼짝 못하게 하면 안되지 않겠는가"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 네 말이 옳다. 내가 적응 해야 하는데 어찌지?" 곧 여름방학이 왔다. 나는 혼자 적응해 보려고 용이를 시애틀의 누나 집에 휴가를 보냈다. 우리는 이사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 **일년간 산통을 경험하다.**

용이를 시애틀에 보내고 남편이 귀가하기 전에 혼자 있는 저녁이었다. 창자가 끓어지는 것처럼 산통이 시작되었다.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한 채 다 죽어가고 있을 때 남편이 귀가했다. Dr. Nam 에게 연락했다. 응급실로 오라고 했으나 겨우 거실 까지 부축 받고 나왔으나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 couch 에 누운 채로 꼼짝 못해 병원에도 가지 못했다. 그 날 후로 산통은 시시 때때로 계속되었다. 남편과 민주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Washington

DC로 가는 중에도 오고, 누구 집에 자는 밤에도 오고, 아픈 통증은 조금씩 나아갔으나 결국 이런 통증은 거의 일년을 계속했다.

이 산통은 내가 형이의 혼에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온 것이다. 나는 말했다: "내가 너무 네 이름을 불러 네가 집을 떠나지 못하고 나를 따라다니는 모양인데 이제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너무 무서워서 내가 살 수가 없으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거라" 하고 말한 다음부터 산통을 시작한 것이다. 내 해석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는 엄마를 떠날 수 없어 그 영혼이 내 주위를 맴돌았거나, 내가 아들을 놓는 것이 너무 아파서 그랬을 것 같았다. 달리 해석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정시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극심한 shock로 인한 psychosis나 grief reaction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여튼 일시적인 정신병 발작임에 틀림없었다. 치료를 받아 낫지 못하면 고질병이 되는 경우였다. 그러나 많이 울 수 있었던 덕분에,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미친 짓을 저지하지 않고 자유로이 표현하게 했다는 점과 주위에서 나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친구들 - Support system이 많았다는 점들이 내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나를 치유에 이르게 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내가 부른 찬송이다.

### **찬송 부르기**

나는 울컥하는 감정이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면 누가 목을 졸라 죽이는 것처럼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럴 때면 한국찬송가를 펴놓고 첫 장에서부터 끝장까지 울며 불며 녀두리를 하며, 통곡하며 불렀다. 한 권을 다 부르고 나면 숨을 쉴 수 있었고, 밥도 먹을 수 있었다. 그 중에 항상 더 많이 부른 찬송이 "나는 어찌해야 좋을지,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르니 인도하소서" 였다.

이 경험이 훗날 내가 노숙자 교회에 찬양을 많이 넣어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찬양사역이 될 줄이야 누가 짐작이나 했으랴! 찬양은 말문과 기가 막혀버린 사람에게 말이고, 대화이고, 하나님께 울부짖음이고, 정서적인 표현이고, 기도이고, 고백이고, 회개여서 영적, 정신적, 육신적 치유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위로의 말들:** 나는 하나님의 위로도 마다한 사람이니 친구들의 위로를 바라지 않았다. 그러나 너도 나도 위로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이런 아픔을 위로하려 온 친구들이 너무 말을 할 줄 모른다 싶었다. 어떤 목사친구는 "이제는 잊어야지 어찌겠는가?" 라고 했다.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결코 잊을 수 없음을 말할 것이다. 어떤 이는 죄값이라고 했다. 누가 그것을 모른다고 꼭 알려주어야 하겠는가? 그런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사친구가 와서는 별로 말을 못하고 혼자 찬송을 불렀다. 또 우리가 나가던 교회의 원로목사님은 위로 카드에다 목회를 일생 하면서 이렇게 할 말을 잊어본 일이 없다고 썼다. 장례식에서 그의 설교제목이 "What Can I Say" 였다. 내게는 그렇게 할 말을 잃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도움이 되었다. 왜냐하면 "할 말을 잃었다" 가 내가 당면한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 이미 말한 Amanda Murphy, 나의 과거의 상사의 말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

**자살 끼:** 나는 자살 끼를 많이 느꼈다. 응급약통을 몽땅 버리고, 멧있는 식칼을 장식으로 벽에 걸어놓았었는데 나는 그것을 치웠다. 치우면 남편은 도로 꺼내 걸었다. 나는 계속 치우고 그는 계속 도로 갖다 걸었다. 우리 둘 이는 왜 그러는가를 말하지 않은 채 숨박꼭질을 했다. 나는 남편에게 그 칼이 무서워서 그런다고 말을 못했다. 남편도 같은 것을 경험할까 봐 무서웠다. 그러나 집안에서 무서워하는 것은 그도 알았었다. 잘 때는 항상 우리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 나서 정지할 수 없는 꿈을 꾸곤

했다. 나는 생명 줄을 놓고 싶은 것이었다. 말하자면 생의 control 을 놓아버리고 싶은 것이 꿈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런 꿈 이야기를 들은 내 상관인 Dr. Murphy 가 언제 쫓으면 살 작정을 할 것 같으냐고 물었다.

### **나와 함께 우신 하나님**

눈앞이 캄캄해 아무런 소망도, 빛도 없이, 고통 속에 절망으로 가득 찬 나날을 집과 무덤과 직장 세 곳을 헤매고 다니던 어느 날 저녁 무렵 아들 무덤 앞에 앉아 심장이 터져라 목놓아 우는데, 내 어깨에 누구의 손길이 느껴져서 얼굴을 들고 보니 어떤 남자 분의 손이었다. 그 남자 분도 울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왜 이렇게 우느냐" 고 물었고, 나는 "아이를 여기에 묻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그런데 당신은 왜 우느냐" 고 물었다. 그는 내 아들 옆의 무덤을 가리키며 "나는 여기에 내 아버지를 묻었고 내게도 그만한 나이의 아들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날 나의 어깨에 닿은 그의 손길은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 같이 느껴졌고, 그의 얼굴을 덮은 눈물은 주님의 눈물로 보였다. 이 체험은 "나와 함께 우시는 주님을 보았다"는 간증이 되었다. 내가 애통할 때마다 나와 함께 애통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영 안으로 볼 수 있었고, 위로가 되었다. 그 후에도 주님께서는 내가 애통할 때마다 나와 함께 애통하시고 내가 통곡할 때마다 나와 함께 통곡하신다고 믿으면서 이런 애통 속에까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 나는 주님의 눈물을 밥으로 삼았고 주님의 등에 업혀 날아다니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 가난과 아픔, 고통과 절망이 가득하고, 영육으로 집 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나처럼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 살고 죽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다는 사실, 아니, 나의 이런 체험에서 그런 동기를 얻었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그래서 훗날 나는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역에 몸을 바치게 된다.

## 1979년 7월 St. Louis 를 떠나다

한국을 등지고 와서 제 2의 고향이 되어 친구도 많고 정든 곳을, 많은 미국친구, 한국친구들을 놔두고 남편은 이 도시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어디론가 떠나자고 했다. 이런 큰 일을 겪었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라는 전문가들의 충고도 있으나 어쩔 수 없이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었다. 시애틀에 형이와 용이의 이복 형제가 있었다. 남편은 그들 옆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형이의 무덤은 거기에 두고 떠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으나 하여튼 우선 떠나기로 했다.

## 하나님의 계시

그 죽음의 도시를 떠나는 마지막 날 밤에 나는 꿈을 꾸었다. 가지가 무성한 엄청 큰 나무가 몽땅 불이 붙었다. 그 나무는 아래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형이의 무덤 앞에 서있는, 아래 사진의 큰 나무인듯싶었다.



내 꿈에 불이 붙던 나무는 형이의 무덤앞에 서있는 나무  
The tree on fire in my dream was the one  
standing in front of Hyoung's tomb in St. Louis

그 다음 순간 그 불이 꺼지면서 온 나무가 재로 변했다. 그 다음 순간 그 재에서 꽃이 피어났다. 내가 영화 제작자라면 이를 입체영화에 담고 싶다. 너무도 엄청난 꿈이라 떨렸다. 나는 이 꿈을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계시라고 생각하며 그 뜻을 알아내려고 오랫동안 고민했다. 소망을 주시는 계시임에는 틀림없었다. 훗날 이 꿈 이야기를 들은 미국인 여 목사 친구는 "죽음에서 부활을 주시는 계시라"고 해석했다.

이런 계시를 주시면서 죽음의 도시를 나가게 하심이 분명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가시는 이사였음이 분명했다. 그런데 차로 시애틀에까지 오는 동안 내가 우리 집 거실에서 교회를 하는 환상이 줄곧 마음에 떠올랐다. 시애틀에 교회를 섬기라는 계시였을까 몽매한 나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남편은 먼저 집을 사놓고 나를 데리러 왔기 때문에 나는 오면서 여러 번 그에게 물었다: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겼던가? 거실이 크던가?" 등등. 그러나 나의 계시와 환상은 말하지 않았다. 어쩐지 가슴에 혼자 우선 간직하고 싶었다.